

# “로비 콘서트·무지카 시네마 등 다양한 기획공연 펼칠 것”

“광주라는 수사가 주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창’ 공연에 광주라는 색을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 중이죠. 일단은 춘천에서의 경험처럼 ‘차와 해설이 있는 마티네 콘서트 후(가칭)’를 진행하거나,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로비의 올림을 활용하는 ‘로비 콘서트’ 등 다양한 기획을 검토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술 비전과 소신을 갖고 균형감을 유지하는 ‘똥심’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합창단 연습실에서 만난 임창은 지휘자는 그렇게 포부를 밝혔다. 그는 대전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춘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등을 역임했다. 프로 단체에서 상임지휘자가 10년 이상 자리를 지킨 사례는 드물다.

임 지휘자와 광주시립합창단의 인연은 19년 전

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05년경 북텍사스 주립대 음악대학원에서 합창 지휘 박사과정을 졸업한 뒤, 처음으로 프로 합창단과 객원 지휘자로 인연을 맺었던 곳이 바로 광주시립합창단이다. 아무것도 몰랐던 ‘초짜 지휘자’가 이렇게 상임 지휘자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 “설레는 감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는 “당시 재직했던 단원 중 절반 정도가 아직도 합창단에 있고, 반갑게 맞아줬다”며 웃었다.

임 지휘자는 춘천시립합창단 등에 재직할 당시 다양한 장르를 선곡해 ‘합창 관객의 확장을 도모했다’는 평을 받았다. 추구하는 선곡도 정통 합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광주시립합창단이 전국 단위 관객들에게 주목받는 합창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광주시립합창단 임창은 예술감독**  
19년전 전 객원 지휘자 인연  
합창에 광주색 어떻게 녹일지 고민  
아마추어·프로 함께하는 무대 계획  
40~50대 위한 가곡음악회 등 구상

임 지휘자는 “광주 내에는 다양한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있는데, 이들과 시립합창단이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면 좋을 것 같다”며 “아마추어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곡, 시립합창단의 리더 아래 난도 있는 작품을 다양하게 편성하려 계획 중이다”고 했다.

그는 줄곧 ‘밸런스’를 강조했다. 아마추어와 프로합창단 사이의 균형, K-팝 등 대중공연과 클래식 합창 레퍼토리 간의 균형을 맞춰야 좋은 하모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역점을 두고 기획하고 있는 특별한 공연은 없는지 물었다. 임 지휘자는 “연령 제한으로 그동안 ‘어린이 관객’들은 합창 공연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전과 춘천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미취학 아동을 위한 공연’을 구상하고 있다”며 “4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특별 기획공연이지만 매년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선보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연장에 오면 예상보다 잘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저녁에는 가족음악회, 오전에 ‘마티네 콘서트’ 형식으로 어린이 공연을 진



최근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합창단 연습실에서 만난 임창은 상임지휘자.

대해서도 물었다. 임 지휘자는 “콘서트홀이 아닌 다목적 홀이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며 “지적되는 음향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보완점이 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 역삼동의 엘지아트센터 공연장의 예를 들었다. 그곳은 음향판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지만 점단 시설이 잘 구축돼 있어 음향을 전달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임 지휘자는 합창의 ‘올림’을 증폭시켜 소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로비 콘서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극장 로비의 잔향과 올림을 활용해 반 야외 공연을 진행한다는 것. 합창 음악은 필수적으로 잔향, 올림이 1.5초 이상 남아있어야 예술적 파도스를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극장에서는 화음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듣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에서 임 지휘자는 로비 콘서트를 기획하고 싶다는 의도도 전했다. 아울러 무지카시네마(영화음악) 콘서트 등,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기획에도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예전에 그는 난타와 합창을 접목해 ‘뮤직세프의 클래식 만찬’ 공연을 펼친 적이 있다. 향후 새로운 기획이 어떻게 공연으로 구현될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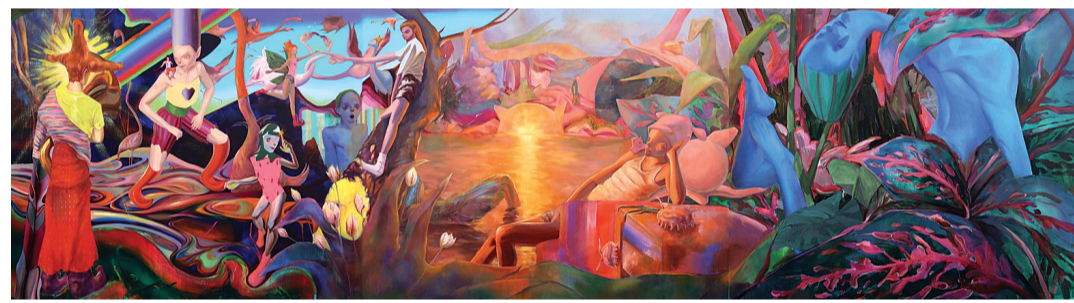
“합창단 중에서는 원래 오페라 싱어를 꿈꾸는 분들도 많죠. 오페라 중에서 ‘사랑의 묘약’, ‘매직플룻’과 같은 작품들은 합창단 고유의 매력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곤 합니다. 물론 뮤지컬이나 오페라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고민도 필요하겠죠. 잘 해내겠습니다.”

“합창단 중에서는 원래 오페라 싱어를 꿈꾸는 분들도 많죠. 오페라 중에서 ‘사랑의 묘약’, ‘매직플룻’과 같은 작품들은 합창단 고유의 매력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곤 합니다. 물론 뮤지컬이나 오페라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고민도 필요하겠죠. 잘 해내겠습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대전시립합창단 재직 당시 임창은 상임지휘자가 지휘했던 ‘가곡의 향기는 가슴에 스미고’ 공연 장면.



최정우 작 ‘Yatopia’

## 청년들의 감성과 사유를 작품으로 만나다

보성군립백민미술관 8월 31일까지 ‘녹음방초’ 전

바야흐로 ‘녹음방초’(綠陰芳草)의 계절이다. 우거진 숲, 향기로운 풀을 뜻하는 녹음방초는 이 즈음에 어울리는 말이다.

청년시절은 인생에 있어 녹음방초라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키가 자라고 굽어지는 나무에 비유된다.

청년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가능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관심을 끈다.

보성군립백민미술관(관장 조현)이 8월 31일까지 펼치는 ‘녹음방초’ 전이 그것. 주제가 말해주듯 전시는 청년들의 이야기와 미래에 방점을 두고 있다.

7명의 작가와 7명의 평론가가 짝을 이뤄 청춘의 시간을 풀어낸다. 28점의 작품은 저마다 색다른 청춘들의 이야기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든다.

먼저 한국화를 전공한 권예술 작가는 식물과 화분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형형색색의 화분과 푸른 식물은 화사한 색감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최시은 평론가는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현대인들의 일상화된 고독을 제기한다.

설박 작가는 화선지에 먹을 입힌 후 폴라주 기법으로 신 수목산수화를 보여준다. 커다란 산이 부유하듯 떠 있는 풍경은 마치 선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배근영 평론가는 여백과 농담이 지니는 수목산수화의 특징을 언급한다.

유토피아를 자신만의 붓질로 구현한 작품도 있다. 최정우 작가는 자신의 페르소나인 Yato(야토)를 매개로 유토피아를 그렸다.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한데 엮인 듯한, 구별되지 않는 형상은 사뭇 이채롭다.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엑스트라인지 작품 속에서는 분별하기 어렵다. 이서진 평론가는 다수도 소수도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기술하고 있다.

손지원 작가는 자연이 주는 인상에 주목하고 전 세진 비평가는 모호한 색감을 이야기한다. 이우빈



권예술 작 ‘누군가의 정원’

작가는 섬을 매개로 휴식을 전하며 류시원 평론가는 섬을 모티브로 의미를 부여한다.

이밖에도 이승완 작가는 가상의 캐릭터를 창안해 표현하고 위혜영 평론가는 신화 등을 매개로 작품을 분석한다. Ainhoa 작가는 질병을 분석해 회화와 설치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구민주 평론가는 이 과정을 박제에 비유해 분석한다.

조현 백민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청년의 특권인 성장과 확장의 의미에 토대를 두고 있다”며 “다채로운 의미와 감성으로 풀어낸 작품과 비평의 글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 일요일과 월요일 휴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펼쳐졌던 광주시립극단 ‘안녕, 프랑켄슈타인’ 공연 장면. (광주시립극단 제공)

## “오페라부터 전통공연까지 함께 즐겨요”

광주상설공연, 매주 토요일 광주공연마루서 무료공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무료 상설 공연.

2019년 첫 공연 이후 올해 3월 대면 공연 1000회를 달성한 ‘광주상설공연’이 7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펼쳐지며 오페라, 연극 하이라이트 무대부터 전통예술공연 작품공모 선정작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공연은 6일 시립오페라단의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장식했다. 이어 판소리예술단 소리화는 매주 일요일마다 장극 ‘춘향, 그 후...’로 관객들을 만난다.

“춘향, 그 후...”는 올해 광주상설공연 전통예술공연 작품 공모 선정작이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춘향이 몽룡과의 옛 추억을 회상하는 이야기다.

연기와 소리, 국악관현악의 신명 등이 어우러

져 있으며 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 황재는 무용단이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13일부터는 시립극단의 3주 연속 공연(매주 토요일) ‘가족 안녕, 프랑켄슈타인’ 하이라이트가 펼쳐진다. 엉뚱한 주인공 프랑과 사막 여우가 협심해 모험을 떠나며 환경 파괴 메시지 등을 함겨하는 작품이다. 미디어아트와 마술, 춤이 결합되어 있으며 원작의 심리적 서스펜스를 덜어내고 아이들이 호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첨가했다.

광주상설공연 유선희 팀장은 “올해 총 5회 기획한 전통공연 중 루트머지에 이어 두 번째로 ‘소리화’ 팀 공연을 선보인다”며 “연극, 오페라, 전통극 등 다양한 레퍼토리 공연을 통해 문화로 빛나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무료 공연,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기획에서 작품으로’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14일까지 참가 수강생 모집

영화의 기초 시나리오와 인력, 소요 비용, 제작 기간 등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는 ‘영화기획자’는 영화 산업에서 필수적인 직업이다. 그러나 이들을 육성하는 ‘영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은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2024년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기획에서 작품으로’에 참가할 수강생 10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전남 거주자(18~34세) 중 영화제작 분야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워크숍은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5일(오후 2시)에는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상훈 이사장과 “당신은 안드로이드드니가” 각본 및 연

출을 맡은 유명상 감독이 출연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어 26일(오전 10시) ‘촬영은 장비가 전부인가’라는 주제로 문명환 촬영감독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주어진 한계에서 시나리오 만들기’라는 주제로 민용근 감독이 오프 특강을 진행한다.

박은영 총괄프로듀서는 “다음 단계를 위한 피칭과 기획서 작성”이라는 주제로 오는 29일(오전 10시)에 강의한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쉬리’, ‘하루’ 등을 편집·제작한 박곡진 편집감독도 수강생을 만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상훈 이사장은 “사전제작 및 후반제작과정 등을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은 크게 달라진다고 한다”며 “이번 광주영화학교가 영화제작인이라는 꿈을 키우는 발판이 됐으면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진행한 ‘공장에서 커뮤니티’ 행사 장면. (광주독립영화관 제공)

한다”고 했다.

워크숍 수강료 20만원(전액 작품 제작비로 사용).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 제공모

15일까지 이메일·우편 접수

전남문화재단은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을 제공모한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목포시와 진도군 등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수목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학술심포지엄, 국제레지던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수목화를 매개로 K콘텐츠화 가능성 등을 모색한다.

응모 희망자는 전남도, 전남문화재단,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

청서, 전시계획서 등 서류를 오는 15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감독은 서류전형, 1차 면접과 최종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8월 중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수목비엔날레는 수목이라는 특수성과 계속해서 변화하는 동시대 미술의 패러다임이 교차하는 현대미술 축제이자 미학적 사유의 장”이라며 “제4회를 맞이하는 2025 수목비엔날레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성숙하는 공동 경험의 장이 되고자 총감독 선임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